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3)

한국정보과학회와 국제화를 위한 도약

연세대학교 박규태*

1. 학회창립과 정보산업

1970년대 초 우리 나라는 활기찬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컴퓨터관련학계나 업계는 희망찬 앞날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특히 이 분야에서 연구하던 교수들은 정보과학이나 정보산업 분야에 관하여 연구의 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을 위하여 자문하는 일도 참으로 많았다. 그 당시 특히 정부는 모든 발전 계획을 주도하였으며 우리학계는 정보산업과 전자공업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자문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정보과학의 중요함을 알고 우리 학계가 중심이 되어 한국정보과학회를 설립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17명의 창립준비위원이 뜻을 모았으며 학회 창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이 당시 동지를 규합하고 이견을 조정하느라 거의 반년동안 매일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드디어 1973년 3월 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정보과학회는 출범하였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초창기 학회 출범과 함께 제대로 학술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초창기 교수들과 기업이 대표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학회를 이끌어 나갔다. 얼마후 학회지도 발간하게 되었고 학술대회도 열었다. 초대 회장은 한상준 박사를 추대하였지만 2대부터는 상당한 경합이 이루어져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리더가 선출되어 큰 무리는 없었다. 학회는 학술활동을 비롯하여 정보산업관련 세미나를 비롯하여 정부정

책 자문에도 참여하였다. 우리는 주로 문서로 산업정책에 관하여 건의하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우리 나라의 그 당시 정보산업이란 유치한 단계였다. 그러나 우리 학자들의 눈에는 선진국의 발전과정을 볼 때 몇 년 안에 큰바람이 불 것이 명백하여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그 밑거름으로 컴퓨터와 반도체산업을 일으켜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각 대학에 컴퓨터관련 학과를 설립하여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10년쯤 지난 70년대 말께 가서는 우리 예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자신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초창기의 우리 학회는 학회명칭부터 논란이 많았다. 컴퓨터학회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컴퓨터를 쓰고 활용하는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광범위하게 포용하기 위하여 정보과학회로 낙착이 되었다. 그 당시 정보(information)라는 말이 보편화되지 못하여 정보(intelligence)나 첩보와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리가 한국정보과학회 회원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오해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학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였다. 가장 큰 것은 재정 지원이었고 사무실도 필요하였으며 학회 로고(logo)도 있어야 했다. 그 당시 회원들로부터 입회비와 회비도 받았지만 쓰는 것에 비하여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찬조비를 받아 해결하였다. 그 중요한 단체가 IBM, UNIVAC, CDC 등이었으며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외환은행 등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에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재정지원을

*중신회원

도와 살림을 꾸려갔다. 초대 기획이사였던 나는 참으로 할 일이 많았다. 사무실도 해결해야 하는데 외환은행 한구석에 자리잡고 새 출발을 한 것 같았으며 그 당시는 전화사정이 여의찮아 연락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때였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는 40대의 젊은 나이였으므로 하겠다는 의지 하나를 가지고 매사를 진행하여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학회의 상징인 마크(mark)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고심하였다. 도안을 맡길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터이므로 고심 중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화가(畫家)인 손문자(孫文子) 여사가 자원하여 도안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사회에서 크게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며 아무런 사례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큰 학회로 발전하였으니 지금이라도 그 화가를 찾아 감사패라도 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 학회발전과 국제활동

우리 학회는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을 거듭하였다. 학회 창립한 이후 5년쯤 지나자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회원수도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때부터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되었으며 학회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집을 강화하고 학술 활동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였다. 1977년 초가 되자 이제 국제정보과학계의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기관이 IFI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로서 UNESCO의 후원으로 전 세계를 망라하여 컴퓨터관련 인사가 모여 59년에 발의되어 1960년 파리에서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국제 기구에 가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나는 1977년 여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IFIP 총회에 대표로 서남원 박사, 김길창 박사, 안사명 교수와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서 박사와 김 박사는 토론토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안 교수와 나는 미국을 경유하여 가는데 시애틀에 도착하자 미국 이민국은 우리를 마치고인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많은 한

국사람들이 경유지인 미국에서 도망치기 때문에 우리도 비행기에 탈 때까지 패스포트를 보관하고 감시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이곳에 이민온 한국사람이 감시하는데 한국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토론토에 도착하자 이곳의 입국 절차도 한국사람에게는 까다롭기 그지 없었다.

토론토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비록판처럼 질서 정연하게 설계되고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위에 떠있는 환상적인 도시였다. 여름이었지만 북쪽에 위치하여서 그런지 서늘하였으며 쾌적하였다. 도시의 상징물로는 씨엔탑(CN Tower)이 400m나 높이 솟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당시 IFIP회장은 미국인 R. I. Tanaka 박사로 일본인 2세였다. 회원 가입에 관한 회의는 8월 3일 Royal York Hotel에서 아침 9시부터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여기서 미국대표는 우리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으며 이외에도 일본을 비롯하여 별말이 없었다. 본 회의에서는 인도대표가 찬성하였고 스위스 대표인 Bobillier 박사와 일본대표인 Ando 박사가 적극적이었다. 다만 소련대표가 우리 가입에 대하여 강한 의사를 개진하였다. 소련대표는 Dr. A. A. Dorodnicyn으로 이미 회장을 역임한 발언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의 주장은 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국제회이나 국제기구에 공헌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우리는 줄지에 질문을 받고 약간 어리둥절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정보과학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일갈하였다. 회원가입은 오후 4시에 결정되었다. 예상한대로 소련과 체코가 기권하고 다른 회원국은 모두 찬성하였으며 회비로 1400SF를 내고 1978년 1월 1일로 회원자격이 유효하다는 결정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인도대표를 접촉하였는데 그는 회원자격심사위원장으로 우리의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주최측은 우리 참가자들을 위하여 온타리오 호수를 배로 태워 섬에 안내하고 Yacht Club에서 연회를 베풀었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다음날 5일에는 우리공관

총영사의 초청 접심이 있었고 저녁에는 주정부 Governor의 초청 환영연에 참석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라는 것이 힘이 있는 몇 나라가 좌우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도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대표하는 것을 실감하였다. 우리에게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힘이 되었다. 총회는 매년 열리고 다음은 일본 동경에서 열고 1979년에는 런던에서 열기로 확정되었다. 총회 후에는 전시회가 따로 열렸으며 입장권도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1979년부터 80년까지 2년간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학술지의 발간과 학술발표회를 비롯하여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특별 회원을 확대하였다. 학술발표는 젊은 교수들이 열심이었다. 논문 편집 위원회는 학회가 창설되자마자 만들어졌으나 분과위원회는 이때부터 만들어졌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조직되었다. 모두 8개 분과로 이루어졌으며 예를 들어 “논리회로설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함으로써 컴퓨터의 제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산화분과위원회”는 우리 학회가 창립 당시부터 줄곧 정부나 기업에 건의한 정보산업의 창의적 노력이 이루어져 이때에 우리 나라에 단말기와 같은 제품들이 속속 출현하는 때였다. 이때의 국산화에 관한 우리의 노력이 80년대에 이루어진 컴퓨터국산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기할만한 것은 “데이터통신분과”와 “데이터베이스분과”가 그 활동을 시작하여 정보 통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9년 9월 22일부터 3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IFIP총회에 혼자서 참석하였다. 런던은 참으로 유서깊은 곳이다. 나는 60년대 초에 이곳에 유학와서 오랫동안 머물던 곳이었으므로 더욱 감회가 깊었다. 항상 안개가 자욱하고 까맣게 된 석조건물들이 그 때를 벗고 하얀 건물들로 변하여 런던은 참으로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총회는 새로 지은 Tara Hotel에서 22일부터 열렸다. 77년 토론토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다. 이때 회장은 스위스의 Bobillier 박사였으며 캐나다 총회 때 우리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으므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22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일요일 그리고 24일 월요일까지 연이어 3일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열렸다. 첫날은 총회에 관한 사항이었고 다음 일요일부터는 각 Working Group들의 보고를 받았다. 일요일도 회의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일요일날 밤에는 영국정보과학회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초대되었고 영국정부의 각료급 인사가 나와 환영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새로 회원국이 된 중국대표가 참석한 것이 특기할 일이었다. 당시로서는 중공이라고 하여 접촉하는 것부터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렘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 전자공학회에서 참석하였으며 시종일관 중국선전에 열중하였고 대단히 빠른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였다. 하루가 지난 다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는 한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역시 소련대표 Dorodnicyn도 참석하였으며 두 번째였으므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차도 몇 번 함께 하였다.

내가 홍차에다 밀크를 타서 마시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영국식 차를 당신네 나라에서도 마시느냐고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 IFIP총회 참석으로 많은 국제적 친구를 갖게 된 것이 큰 소득이었다. Tanaka 박사를 비롯하여 Ando 박사 그리고 Bobillier 박사는 그후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으며 특히 Ando 박사는 일본에 갈 때마다 접촉하였으며 여러 가지 편의도 보아주었다. 그후 총회장도 역임하고 계속하여 후지쓰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였으나 아직도 IFIP의 명예회원으로 있다. 런던 총회에서 만났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는 서울까지 찾아온 일도 있었다. 이 Working Group에서 발표하던 대표들을 다른 국제 학술대회에서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우리는 구면이기 때문에 곧 친구가 되었다. 런던 총회에서 돌아온 다음 얼마 안되어 우리 나라는 10·26사건이 발생하여 큰 혼란에 빠져들고 대학은 모두 휴교 조치되어 학회활동이 상당기간 동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 봄이 되자 학회는 점차 정상화를 회복하였다.

3. 정보과학회가 할 일

금년으로 한국정보과학회가 창립한 지 25주년을 맞게 되며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정보통신분야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실공히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2010년까지의 장기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을 밝히고 착착 그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제 이미 지구촌은 사실로 나타났으며 우리도 이 계획에 맞추어 2015년까지 정보사회를 위한 정보통신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면에서는 우리 나라가 다른 어느 선진국들보다도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한발 앞서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다. 핸드

폰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통신 기기가 확산되고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는 것을 볼 때 그 발전속도는 가할만하다. 따라서 정보는 이 비싼 기기를 이용하여 얻는 것이므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바로 돈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국들과 대열을 같이 하기 위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21세기에 도래할 고도정보사회를 전망하고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정보사회만 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학회가 하여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 '97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

- 일 자 : 1997년 3월 29일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 주 최 : 인공지능연구회
- 문 의 처 :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박승수 교수
T. 02-360-2316